

출판 한류 중심에 '남도문학'

올해 한국 문학 세계화는 남도 작가들이 이끈다.

소설가 황석영, 이승우, 김경옥, 정유정의 소설과 문정희, 나희덕, 김경주 시인의 시가 영어와 불어, 독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해외에 소개될 예정이다.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성곤)은 올해 30여 명의 작가의 작품을 소개, 문화 한류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번역되는 작품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어, 폴란드어, 스웨덴어, 러시아어, 체코까지 모두 11개 언어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30여 명 작가들의 작품이 11개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문학에도 '세계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한국문학이 해외(유럽)에 소개된 지는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조용한 동방의 나라로 알려졌던 한국은 문학작품 번역을 계기로 수준 높은 문화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문학의 세계화는 문인들의 해외방문이 잦아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화의 폭과 깊이가 풍성해진 것이다. 그 가운데 올해 남도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것은 남도 문학이 한류 확산과 세계화에 준하는 가치와 콘텐츠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황석영의 '바리데기'가 올 6월 러시아 출판사를 통해 현지 독자를 만난다. 선 굵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세계를 형성화해 온 황 작가는 이 작품에서 신화를 차용, 21세기 한반도와 세계의 현실을 역동적으로 담아낸다.

이승우 소설가의 '식물들의 사생활'도 영어와 중국어로 소개된다. 이 소설은 한국소설 최초로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폴리오 시리즈 목록에 오를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생의 이면' '미국에 대한 추측'이 유럽·미국에 번역돼, 노벨상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이 작가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광주 출신 김경옥 소설가는 2개의 작품이 처음으로 외국 독자를 만난다. '동화처럼'은 프랑스어로,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영어로 번역 출간된다. 전자 '동화처럼'은 사람 냄새로 가득한 동화 와도 같은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고 후자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인간의 심연을 다층적으로

작가 30여명 작품 11개 언어로

이승우 '식물들의...' 美·中

정유정 '7년의 밤' 中·獨 진출



황석영



정유정



이승우



문정희

펼쳐 보인다.

함평 출신 정유정 작가는 '7년의 밤'이 중국과 독일로 진출한다. 7년의 밤 동안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토대로 형성화된 이 작품은 정유정 소설의 특징인 드라마틱한 서사와 간결한 문체가 잘 드러나 있다.

보성 출신 문정희 시인의 '지금 장미를 따라'는 일본어로 소개된다. 여성적 생명의식을 폭넓은 감성으로 노래한 작품으로 문 시인의 실존적 의식이 투영돼 있다.

나희덕 시인과 김경주 시인은 각각 '야생사과'와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가 영어로 번역된다. 나 시인은 일상의 성찰을 통해 특유의 언어에 대한 사유를 드러내며 김 시인은 다른 시간, 삶의 다른 계기에 초점을 맞춰 불가능성에 대한 추구를 담담히 노래한다.

이 밖에 박경리, 박완서를 비롯해 김영하, 박민규, 김연수, 성석제, 편혜영, 김애란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도 번역된다. 특히 올해 4주기를 맞은 박완서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내달 루마니아어로 출간된다.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5월 폴란드에서 선을 보이고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각각 중국과 스웨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신경숙의 스테디셀러 '엄마를 부탁해'는 오는 5월 핀란드서 출간된다. 성석제의 '왕을 찾아서'(중국어)와, '위풍당당'(독일어)도 아시아와 유럽으로 소개된다.

작품의 번역점이 가장 많은 작가로 알려진 김영하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검은꽃'(폴란드어·중국어)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영어·불어) 2편이 모두 4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된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이미 출간되어 눈길을 끈 바 있는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일본어로, 김애란의 소설집 '비행운'은 프랑스어로 소개된다. '한국문학의 홍보석' 같은 작가 김연수는 '원더보이'가 러시아로 번역돼 현지 독자와 만난다.

이 같은 번역 추세에 대해 황석영 소설가는 "우리 문학이 유럽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다. 더러는 외부의 시선이 내부의 평가보다 우호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고 말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프랑스 '진하게~' 만나는 시간

광주시네마테크, 12~15일 고전 특별전

'프랑스 고전 작품을 만나다.'

광주시네마테크는 1930~60년대의 프랑스 고전 걸작을 상영하는 '프랑스 고전영화 특별전'을 진행한다. 12~15일까지 광주극장.

상영작은 모두 7편으로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친 영화들이다.

시적 리얼리즘 영상을 창조했던 장 비고의 첫 번째 극영화 '폼행제로', 수많은 평론가와 감독들이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뽑는 장 르 누아르의 대표작 '거대한 환상', 좌충우돌 코미디 속에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자크 타티의 '죽제일'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파리가 가장 번성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자크 베케르의 '황금투구', 특유의 역동적인 스타일이 살아있는 막스 오펜스의 멜로드라마 '마담 드...', 소매치기 과정에 대한 거의 해부학적인 묘사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로베르 브레송의 '소매치기', 조르주 프랑주가 선보인 강렬한 이미지의 시적인 공포영화 '얼굴 없는 눈' 등이 대거 중다.

'폼행제로'(12일 오후 7시30분), '죽제일'(14일 오후 2시40분) 상영은 1인 관람료로 동반 3인까지 관람할 수 있는 '나눔 CINEMA'로 진행한다. 광주프랑스문화원이 후원했다. 티켓 가격 7000원.

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황금투구'

엠펙으로 배우는 전통악기 연주법

국악방송, 명인·명장 참여 가야금·피리 등 악기정보 담아

국악방송이 전통국악기의 연주기법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우리악기 토티보기'를 제작했다.

국문애플과 영문애플로 동시에 제작된 '우리악기 토티보기'에는 가야금(현악기), 피리(관악기), 북(타악기) 등 우리나라 전통 악기 3종류의 악기정보가 담겼다. 악기명장들의 제작 과정, 명인들의 연주기법, 연주음악감상 등 텍스트, 음원, 동영상 등으로 만날 수 있다. '토티보기'는 '살살이 훑어 가며 살핀다'는 순

수한 우리말이다.

'우리악기 토티보기' 제작에는 최충웅(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도예악 보유자 후보), 지성자(전북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 산조 보유자) 등 모두 6명의 국내 정상급 국악연주자가 힘을 보탰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악방송 홈페이지(www.gugakfm.co.kr)를 통해 PC로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음악협회 신임회장에 김유정 단장

광주음악협회 제 10대 회장에 김유정(제9대 수석 부회장) 광주여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18년까지 3년이다.

김 신임회장은 지난 7일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공예연정에서 열린 광주음악협



회 정기총회에서 선거인단 64표 중 38표를 얻어 윤대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신임회장은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25년간 재직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광주 예술문화상 특별우수상, 광주 예술문화상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광주재능기부센터 공동대표, 광주문화재단 광주성악공쿠르 운영위원, 다문화 M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어?”

www.cjhellovision.com